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금감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특별점검 실시

□ 금감원은 최근 유사한 금융사고의 반복적 발생을 억제하고자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.

- A은행 해외지점의 거액횡령과 부당대출, B보험회사의 보험료 횡령, C자산운용사의 펀드자금 무단인출 사고 등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금융사고의 유형별 원인 및 특징을 분석하고 발생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최근 특별점검을 실시함.
- 2006~2010년 6월 중 전체 금융권의 금융사고 발생은 연평균 약 218건, 1,053억원 규모이며, 횡령과 유용이 건수기준 83.4%를 차지했고, 사기 8.0%, 도난·피탈 3.9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 - 권역별로는 은행·중소서민권의 경우 고객예금의 임의해지 횡령, 임의 대출 취급 후 횡령 등의 사고가, 보험권은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, 약관대출금 횡령 등이, 금융투자권역은 고객 투자자금 횡령사고가 주류를 이룸.
-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재, 직무분리를 통한 상호견제 미흡, 영업점의 자점검사 업무 불철저 등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.

□ 금감원은 유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고의 유형별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.

-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요청 및 특별점검을 실시함.
- 금융사고 발생 시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사고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행하는 한편 협회, 중앙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선도 활동도 유도함.
- 내부통제관련 경영진의 인식 제고와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를 지도함.
- 금융사고 관련 핵심위험지표(KRI)\* 개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회사별 금융사고 사례의 공유 및 교육도 강화함.

\* 핵심위험지표(Key Risk Indicator)란 위험을 측정해 모니터링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치화가 가능한 지표를 의미

(금융사고 유형별 사고예방 강화방안 마련·시행, 금감원, 8/23)